



22일 광주월드컵경기장 육상경기장에서 열린 2008 육상그랑프리대회 남자부 110m 허들경기에서 1위를 차지한 박태경(왼쪽에서 두번째·광주시청)이 역주하고 있다.

/위지환기자 jrvi@kwangju.co.kr

2008 한국 그랑프리 육상 광주대회

임희남 100m '금빛 질주'

(광주시청)

박태경(광주시청) 110m 허들 금...체전 은 한 풀어
임은지(부산), 최윤희 꺾고 여자장대높이뛰기 우승

임희남(25·광주시청)이 국내 육상 스타들이 총 출동한 '2008한국그랑프리 육상경기대회' 100m에서 새로운 왕좌에 올랐다. 임희남은 22일 광주월드컵경기장 육상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남자 100m 경기에서 10초 69로 골인, 전덕형(대전광역시)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임희남은 지난해 일본 그랑프리대회에서 10초 29로 한국신기록을 경신했으나 풍속으로 인해 기록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하지만 올해 10초 후반대를 꾸준히 유지하는 등 페이스를 끌어올리고 있어 내년에는 한국신기록을 경신할 기대주로 각광받고 있다. 제89회 전국체전 남자부 110m 허들에서

은메달에 머물렀던 박태경(광주시청)은 13초 87의 기록으로 골인, 금메달을 차지해 전국체전 은메달의 아쉬움을 달랠다. 89회 전국체전에서 고대영(울성군청)에 밀려 대회 7연패에 실패하며 은메달에 머물렀던 김덕현(광주시청)은 세단뛰기에서 역시 고대영에게 1위를 내주며 은메달에 그쳤다. 강성모(한국체육대학)는 남자부 높이뛰기에서 2m10으로 우승했으며 황인성(인천시청)은 남자부 포환던지기에서 17m71로 우승을 차지했다. 임은지(19·부산 연제구청)는 미녀새 최윤희(22·원광대)를 누르고 여자 육상 장대

높이뛰기 새 여왕에 등극했다. 임은지는 이날 4m10을 넘어 4m에 그친 한국기록(4m17)보유자 최윤희를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오은숙(여수시청)은 여자부 400m 허들에서 논산시청 이아름에게 밀려 아쉬운 준우승에 머물렀다. 정다솔(덕계고등학교)은 여자부 100m에서 실업선수들을 제치고 12초 42로 골인 우승을 차지하는 기쁨을 토했다. 이연경(울산시청)은 여자부 100m 허들에서 13초 80으로 1위로 골인했다. 이번 2008 한국그랑프리육상대회는 대한육상연맹이 2011년 대구 육상세계선수권대회 유치 후 국내 선수의 경기력 향상과 국내 육상 팬들의 흥미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연맹은 이날 각종목 1~3위까지 상장과 트로피, 경기력 향상금(1위 100만원, 2위 50만원, 3위 30만원)을 지급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수원시청 한승민 백마장사 되찾다

영동 장사씨름대회

한승민(수원시청)이 8개월 만에 장사 타이틀을 되찾았다. 한승민은 22일 충북 영동체육관에서 열린 2008 영동체육장사대회 첫날 백마급(80kg 이하) 결승전(5전3선승제)에서 이진형(울산동구청)을 3-0으로 가볍게 물리쳤다. 올해 2월 서울 설날대회 백마-거상통합장사 결정전에서 거상급(90kg 이하)으로 출전해 우승했던 한승민은 한 체급 낮춰 나온 이번 대회에서 다시 꽃가마를 탔다. 팀 동료 박현욱을 꺾고 결승에 오른 한승민은 첫째 판에서 뒤집기를 하는 적하다가 잡채기로 연결, 기선을 잡은 뒤 둘째 판에서는 1초를 남기고 다시 잡채기를 성공해 2-0으로 앞서 갔다. 위기에 몰린 이진형은 셋째 판에서 등채기를 시도했지만 한승민과 함께 모래판에 떨어졌다. 심판들은 합의 끝에 이진형의 등이 모래판에 먼저 닿았다는 판정을 내리면서 황소 트로피는 한승민에게 돌아갔다. 이진형은 지난 5월 안동장사대회 우승 이후 다시 정상을 노렸지만 한승민의 벽에 막혔다. <백마장사 결정전 순위 >장사 = 한승민(수원시청) >1품 = 이진형(울산동구청) >2품 = 이광석(기장군청) >3품 = 박현욱(수원시청) >4품 = 임창환(증평군청) >5품 = 이재안(동작구청) >6품 = 한상용(의성군청) >7품 = 오광훈(증평군청)



'부상 회복' 최윤희가 "날 막을 순 없어" 22일 안산와동심내체육관에서 벌어진 여자 프로농구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의 경기에서 부상에서 복귀한 신한은행 최윤희(왼쪽)가 국민은행 변연하의 수비를 피해 패스할 곳을 찾고 있다. /연합뉴스

두산 오늘 플레이오프 6차전 삼성

"마지막 승부" vs "끝까지 가자"

'마지막 승부'와 '기사회생'을 꿈꾸는 동상이몽(同林異夢)의 두산 베어스와 삼성 라이온즈. 두산 베어스와 삼성 라이온즈가 23일 잠실구장에서 팀의 사활을 건 플레이오프 6차전을 갖는다. 중시타선이 살아나면서 두산은 2연패 뒤, 2연승을 쟁기며 3승2패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두산에게 남은 승수는 이제 하나, 6차전이 2008시즌 플레이오프 마지막 경기라 될 수도 있다. 두산과 삼성은 '좌완' 이해천과 '우완' 윤성환에게 팀의 운명을 맡겼다. 두 선수는 이미 3차전에서 선발 맞대결을 펼쳤다. 결과는 윤성환의 승리. 윤성환은 이날 5이닝동안 6피안타 2탈삼진 1실점으로 6-2 팀의 승리를 견인했다. 이해천도 패전투수의 명예를 쓰기는 했지만 5이닝동안 4피안타 4탈삼진 2실점으로 호투하며 자신의 몫을 해냈다. 강속구를 앞세운 이해천은 노련함을 더해 자신의 손으로 한국 시리즈 진출을

마무리 짓겠다는 각오다. 반면 올 시즌 정규리그에서 10승을 올렸던 윤성환은 플레이오프 2승을 신고하며 승부률 7차전까지 끌고 가겠다는 각오다. 마운드 지원사격에 나서는 타선의 무게는 두산에 더 기울다. 두산의 테이블 세터 이종욱과 오재원은 플레이오프 5경기에서 각각 0.520과 0.500의 타율을 보이며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두 선수는 5개의 도루까지 곁들여 13차례 홈을 밟으며 만점활약을 펼쳤다. 잠자던 중시타선의 회복세도 눈에 띈다. 3차전까지 0.250, 0.214의 타율을 기록하는데 그쳤던 김현수, 김동주가 지난 21일 대구구장에서 열린 플레이오프 4차전에서 각각 홈런포를 쏘아올리며 부진탈출을 알렸다. 앞선 3경기에서 0.100의 타율에 그쳤던 홍성흔도 이날 2루타를 터트리며 타격 조율에 나선 뒤 5차전에서 홈런을 신고했다. 중시타선의 부활로 두산은 4·5차전에서 무려 18점을 뽑아냈다. 삼성은 좌타자들이 고민이다. 2차전

연장승부 결승타의 주인공 신명철이 0.474의 타율을 올리는 등 김재걸(0.500), 박석민(0.417), 박진만(0.368) 등 우타자들이 제 몫을 해내고 있지만 믿었던 박한이(0.182), 양준혁(0.222), 최형우(0.250)등 좌타자들의 부진이 아깝다. 공교롭게 6차전 선발 이해천은 삼성 공격의 키를 쥐고 있는 박한이-양준혁-최형우에게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고, 윤성환은 두산 타선의 중심 김현수-김동주-홍성환에게 강세다. 이번 포스트 시즌에서 이해천은 박한이-양준혁-최형우를 11번 상대, 최형우에게 2개의 사구를 내주긴 했지만 안타를 하나도 허용하지 않았다. 윤성환은 김현수-김동주-홍성흔과의 8차전 대결에서 2루타 하나만 허용했다. 양팀의 선발 이해천과 윤성환의 어깨에 숨막힌 마운드 싸움과 화끈한 방망이 싸움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프로야구 히어로즈 선수단 재구성 착수

프로야구 히어로즈가 선수단 재구성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히어로즈는 22일 투수 박정희 등 10명을 자유계약선수(FA)로 공시해 사실상 방출했다고 밝혔다. 박정희 말고도 투수 이상현, 오성민, 조

순권, 김동현과 포수 정종수, 내야수 이유섭, 이종선, 임경남, 외야수 장요상 등이 방출 대상자에 포함됐다. 남은 선수 55명 중 2군 선수들을 중심으로 한 40명은 23일부터 제주도 마무리 훈련에 들어간다.

이번 훈련에는 김시진 감독 등 코치진과 신인 11명이 모두 참가한다. 나머지 주전급 15명 중 투수 장원삼, 황두성 등 9명은 다음 주부터 목동야구장에서 체력훈련을 할 예정이고, FA로 풀릴 것으로 예상되는 투수 김수경, 전준호와 포수 김동수, 야수 이승용, 전준호, 송지만 등 6명은 개인훈련을 하기로 했다.

필라델피아 '젊은 피' 대결 탬파베이

'MTV와 ESPN을 보며, 플레이스테이션을 하며 자란 1980년대생들의 월드시리즈(WS)' 23일(한국시간)부터 7전4선승제로 치러지는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월드시리즈에서 맞붙는 필라델피아 필리스와 탬파베이 레이스는 '젊은 피'들의 격돌이라는 점에서 야구팬들의 흥미를 끈다. 최근 두 팀이 발표한 시리즈 출장자 가운데 무려 24명이 1980년 이후 출생한 이력이다. 이 중 17명은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시절인 1981~1989년 사이에 태어났고 특히 13명은 1982년 10월 이후 출생한 선수다.

오늘 월드 시리즈 1차전 80년 이후 출생 총 24명 올해 '꿀핀 신화'를 쓴 탬파베이는 월드시리즈 출장 로스터에 포함된 선수 중 15명이 80년대 이후에 태어난 이력이고 이리다 보니 선수들의 평균 나이는 27.4세에 불과하다. 필라델피아는 탬파베이보다 '늙은' 팀이지만 어디까지나 상대적 평가일 뿐 30

세 이하 '젊은 피'가 팀내에 11명이나 있다. 특히 양 팀 선발투수진에서 80년대생들의 위력이 도드라진다. 우선 필라델피아의 선발진 4명인 스캇 카즈미어(24), 제임스 힐즈(26), 맷 가자(24), 앤디 소나스틴(25)은 모두 20대 중반으로 1969년 월드시리즈에 진출한 뉴욕 메츠의 선발진 이후 가장 나이가 어리다. 필라델피아는, 1962년생(46세)으로 '할아버지뻘'이라고 할 제이미 모이어도 있지만 1차전 선발로 예고된 에이스 콜해밀스는 겨우 25세에 불과하다. 브렛 마이어나와 조 블랜튼은 각각 스물여덟이다. /연합뉴스